

오이타현 근대화 유산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하쿠스이 댐

하쿠스이 댐은 1938년, 농가를 오랜 세월 괴롭혀 온 관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노 강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댐 건설 전에는 침식으로 현지의 하천이 계곡에 흐르게 되어 논밭에 물을 대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멀리 떨어진 강의 상류와 논밭을 잇는 관개 용수로로 정비하는 고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쿠스이 댐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현재도 농지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댐은 관개만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높이 14m, 폭 90m 이하로 발전용 댐보다 훨씬 작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댐의 양 끝에는 곡면 유로와 계단식 유로가 설치되어 있어 물의 유속을 제어하고 강 아래쪽의 침식을 막습니다. 댐 중앙에 흐르는 물이 새하얀 옷과 같이 아름답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쿠스이(白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경관을 지녔기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댐이 관광객으로 가장 붐비는 시기는 주위의 산이 붉고 노란 옷을 입는 단풍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주차장 근처 광장에서는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흐르는 댐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쿠스이 댐은 다케타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30분 걸리며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